

# Fukushima NOW

Vo.3 (2017년 2월 발행)

후쿠시마현 국제교류협회는 동일본대지진과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전사고 직후부터 광고지 'Gyro(자이로)'의 지진부흥판인 '힘내자 후쿠시마'를 다국어로 발행하여, 지진재해 부흥과 복구를 향한 작업, 국제교류와 협력단체들의 활동 등을 국내외로 발신해 왔습니다.

지금은 'Fukushima NOW'에서 후쿠시마의 현재 상황과 후쿠시마현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 출신자들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발신하고 있습니다.

## Voices from Fukushima

### 쿠도 죠세피나씨 (필리핀 출신 · 코오리야마시 거주)



코오리야마시에서 생활한 지 27년이 되었습니다. 고국보다 일본에서의 생활이 길어지면서 일본인의 감각과 비슷해져 가는 것을 느낍니다. 일본에서의 생활에도 익숙해졌지만, 6년 전 동일본대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그 충격으로 동요했습니다. 다행히

코오리야마시는 큰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곧 이전 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코오리야마시의 가설주택에서 피난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난 후에는 타인의 일이라 느껴지지 않아 교회 블런티어 활동에 참가하며 협력했습니다.

토, 일요일에는 코오리야마시에 있는 교회에서 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필리핀 출신자들뿐만 아니라 베트남이나 아메리카 등의 외국출신자들도 참가하고 있고, 특히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에는 코오리야마시 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 옵니다. 고국의 친구들에게 저는 엄마나 언니 같은 존재가 아닌가 합니다. 일본에서의 생활이나 가족과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해서 자주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동시에 저 자신도 가끔 모국어로 이야기 할 수 있어서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모임에 나가면서 얼굴을 익히게 되고 친해지면, 혹시 어떤 곤란한 일로 혼자 전전긍긍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에 모두와 자주 연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매주 미사에 다니는 필리핀 출신자 친구들

### 메르세데즈 · 크류스씨 (아메리카출신 · 후쿠시마 거주)



2016년 여름 일본에 왔고 후쿠시마시 고등학교에서 ALT(외국어 지도 조수)를 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에서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던 날, 조금 큰 지진이 일어나서 많이 불안해졌습니다. 또한 전차나 버스를 탈 때 목적지를 틀리거나 태어나 자란 미국 남부와는 다른 점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처음 얼마간은 실수투성이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곳에서 생활하며 느끼는 위화감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지금은 그런 위화감을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제교류 이벤트나 일본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가해 아직 알지 못하는 일본의 매력을 발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후쿠시마의 '食'는 저에게 잘 맞고 저를 건강하게 해 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복숭아와 배 등 맛있는 과일은 행복을 느끼게 해 줍니다. 후쿠시마의 과일은 크고 달고 수분이 많다고 다른 현에 사는 친구들이나 미국



▲외국인 게스트로 GC 카페에 참가

가족들에게도 알리고 있습니다. 동일본대지진 이후 후쿠시마에 대해서 아직 마이너스 이미지를 가지고 있거나 오해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산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후쿠시마에 와서 지내면서 실제 상황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스터디투어 등으로 후쿠시마현 각지를 방문할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이용해 현 후쿠시마 부흥 상황을 더욱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 Scenes of Fukushima

### 중남미 이주자 자제 수용

1월 23일(월)부터 2월 3일(금)까지 후쿠시마현 주최의 '중남미 이주자 자제 연수 수용 사업'이 실시되어, 후쿠시마현에서 브라질, 아르헨티나, 페루, 도미니카공화국으로 이주한 이주민 자제 5명이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연수생 5명은 미하루마치에 있는 후쿠시마환경창조센터(코뮤탕후쿠시마)와 코오리야마시에 있는 후쿠시마 재생가능 에너지연구소 등의 설비나 미나미소마시 오다카쿠 등을 시찰하면서 후쿠시마현의 현황과 동일본 대지진으로 생긴 변화에 대해서 이해를 도모했습니다. 또한 키모노를 입는 방법과 소바 만들기 등 일본문화를 접하는 체험과 아이즈 와카마츠시에 사는 중학생들과의 교류회, 스키·스노보드 체험 등도 있었습니다. 체제기간에는 본 협회 '다문화공생·국제교류블런티어'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의 협력으로 일반 가정에서의 홈스테이를 체험했습니다.



▲스키와 스키보드를 처음 체험하는 참가자들

### 태국으로 후쿠시마 P R 페이스북 발신

영상과 웹 제작 등의 일을 하고 있는 태국의 파니흐 푸리왓씨가 금년 후쿠시마현 위탁을 받아 페이스북 페이지 'Welove Fukushima'에, 직접 찾아 간 후쿠시마현 각지의 관광지과 사계절의 풍경, 향토요리 등의 정보를 태국어로 수시 발신하고 있습니다. 태국 현지의 팔로워들의 큰 반응이 이후 후쿠시마를 방문하는 태국인 관광객 증가로 이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Welove Fukushima」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WeLoveFukushimaTH/>

### 긴급시에 필요한 일본어 학습

1월 22일(일) 외국 출신자들을 대상으로 코오리야마시에 있는 코오리야마 카톨릭교회에서 119 긴급전화 시 필요한 일본어와 심폐소생법 등 긴급처치에 대한 강좌를 실시했습니다. 필리핀과 베트남 등의 출신자 12명이 참가해서 만의 하나 생길 긴급 상황 시 확실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코오리야마 소방서에서 신고 훈련을 하고 있는 참가자

### 다국어 부흥정보 포털사이트 '후쿠시마 부흥스테이션'

후쿠시마현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중 하나인 '후쿠시마 부흥스테이션'에서 후쿠시마현의 부흥상황과 지진, 원자력 재해에 관한 정보 등을 9개국어(일본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로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후쿠시마현 방사능 측정 맵'에서 후쿠시마현의 각종 환경방사선 측정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부흥 스테이션 URL <http://www.pref.fukushima.lg.jp/site/portal-ko/>



## FIA에서의 알림

### ○외국 출신자를 위한 생활상담창구 안내

본 협회에서는 외국 출신자들을 위해서 외국어로 생활상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 영어·중국어·일본어   매주 화요일~토요일   9:00~17:15
- 한국어·타갈로그어·포르투갈어   목요일   10:00~14:00

전화 : 024-524-1316 (상담전용)

E-mail : [ask@worldvillage.org](mailto:ask@worldvillage.org) (상담전용)

### 발행자

(공재) 후쿠시마현국제교류협회

우편번호: 960 - 8103

후쿠시마현 후쿠시마시 후나바초 2-1

☎024-524-1315

FAX 024-521-8308

E-mail

[info@worldvillage.org](mailto:info@worldvillage.org)

URL

<http://www.worldvillage.org>

